

창업축제 열기로 뜨거운 캠퍼스... GIST, 학생창업 활성화 행사 연달아 개최

- 지역민과 함께 즐기는 'GIST 기술창업 축제 한마당'
- 청년창업 네트워킹의 장 마련... 호남권 최대 학생창업 허브기관 기대



▲ '2023년 GIST 투자유치 IR 대회' 행사에서 임기철 GIST 총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.

광주과학기술원(GIST, 총장 임기철)은 설립 30주년을 맞아 **11월 중 다양한 학생창업 관련 행사를 개최**했다고 밝혔다.

GIST 창업진흥센터(센터장 임성훈)는 창업을 꿈꾸는 학생들의 기업가 정신 함양과 건강한 창업문화의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 **'투자유치 IR 대회 + 스타트업 나이트'*** 및 **'AI&IoT 메이커톤 대회'****를 함께 열었다.

* **투자유치 IR대회 + 스타트업 나이트:** (예비)창업자를 위한 '투자유치 IR대회'에 이어 학생 창업축제인 '스타트업 나이트'로 이어지는 GIST만의 독특한 창업문화행사

** **AI&IoT 메이커톤 대회:** 인공지능 및 사물인터넷 관련 디지털 제작에 관심 있는 전국 일반인 및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시제품 제작 경진대회

10일(금) 개최된 **'제8회 GIST 투자유치 IR 대회'**는 학생, 입주기업, 창업유관기관 관계자, 투자심사역 등 25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기술창업 분야 4개 팀과 서비스창업 분야 2개 팀의 발표로 진행됐다. **인공지능, 에너지, 자율주행, 서비스 분야 등 다양한 주제가 소개**되어 일반인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봤다.

심사를 통해 기술부문의 ▲(주)AunionAI(대표 김홍국, GIST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교수)의 '인공지능 기반 음성기술이 적용된 온라인 자막 및 더빙 생성 서비스'가 **최우수상의 영예**를 안았으며, **우수상**은 기술 부문에서 ▲(주)메타영상(대표 주호택)의 'AI 영상 뷰티 클리닉'과 서비스 부문에서 ▲레고(대표 조성진)의 '드라이브 중심의 당일치기 관광 콘텐츠 제공 서비스, REGO:now'가 각각 선정됐다.



▲ '2023년 GIST 투자유치 IR 대회' 에서 최우수상 등 시상식을 개최하고 있다.

이어서 같은 날 저녁 시간에 진행된 '스타트업 나이트' 행사는 'G!G!E!(Gather, Get Enjoy)'를 주제로 **창업을 흥미롭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특히 신입생들의 관심을 끌었다.**

또한 GIST, 전남대, 전북대, 조선대 등 호남권 학생들이 대거 참여해 멘토링 행사, 아이디어톤, 초청강연, 창업동아리 부스체험, 특별공연 등 **창업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촉진하고 참여자들간 네트워킹을 도모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.**

10일과 11일에는 GIST 내 복합창업공간인 'Creative Space G'에서 'AI&IoT 메이커톤 대회' 본선을 GIST, 서울과학기술대학교, 중앙대학교, 전남대학교, 인하대학교, 한양대학교 등 전국의 대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개최됐다.

총 11개 팀의 39명이 참여해 1일차에 각 팀의 아이디어 발표와 팀별 시제품 제작까지 진행됐으며, **시제품 제작에 창의성, 기술성, 실용성, 공익성, 완성도를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.**

대회 2일차에는 **팀별 시제품 발표 및 평가토론회를 통해 수상자를 선정했다.**

최우수상에 ▲'피아노 연주자 및 독서자를 위한 페이지터너(팀명: 무빙)'가 선정돼 GIST 과학기술응용연구단장상과 상금 100만 원을, **우수상**에는 ▲'독거노인을 위한 장치(팀명: 쓰기나름)'가 창업진흥센터장상과 상금 50만 원을 받았으며, **장려상**에는 ▲'다 기능 AI기반 매니플레이터(로봇팔)(팀명: 이디스)'가 선정돼 창업진흥센터장상과 상금 30만 원이 수여됐다.



▲ '2023 GIST AI&IoT 메이커톤' 행사를 개최하고 참가자 단체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.

임기철 GIST 총장은 환영사에서 “창업은 끊임없는 노력과 대담한 결단력, 공학적 전문성과 인문학적 소양까지 갖추어야 성공할 수 있는 지난한 과정”이라면서, “기업가로서의 놀라운 여정에 첫발을 내디딘 것을 환영하며,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의 꿈과 포부를 실현하기 위한 든든한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”고 말했다.